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5

TEL.(02)726-1010(태), 1176 FAX.(02)726-1292

www.sdi.re.kr

세계

1

도시동향

2000년
6월5일

HEADLINE NEWS

2000/2001년도 Best Value Policy Plan 수립 (런던)

영국의 모든 지방정부는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Best Value Policy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전반적 재점검을 실시하며, 2002년까지 이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런던시가 수립한 「런던 Best Value Policy Plan 2000/2001」의 주요 목적은 시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과 개선계획 및 모든 행정 서비스의 재검토 계획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과 대화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런던시는 이 계획에서 교통, 주택, 환경위생, 예술문화, 계획 및 경제 발전 분야에서의 Best Value 성과 지표를 정하고 달성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www.cityoflondon.gov.uk/organisation/bestvalue.htm)

HIGHLIGHTS

도시관리

1. 고층건물 건축높이 규제에 대한 권고기준 마련 (런던)
2. 살기 좋은 근린주구 건설을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 수립 (샌프란시스코)

도시환경

3. 인터넷에 의한 환경정보와 환경지도 제공 (베를린)
4. 쓰레기 수집업무를 2001년 3월부터 완전 민영화 (싱가포르)
5. 하수도를 정보통신망으로 이용 (동경)
6. 「디젤」車 공해 규제 확산 (동경)

도시교통

7. 자동차 운행등록비 인상 (시카고)
8. Taxi Call Services (싱가포르)

사회복지

9. 음식점 위생검사 결과보고 웹사이트 운영 (뉴욕)
10. "구형 휴대용 전화기를 생명선 응급용전화으로 (뉴욕)
11. 배회고령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일본 神奈川県)

행재정

12. 東京의 국제경쟁력 장애요인은 '공항 접근 불편, 비즈니스 고비용' (동경)
13. 세금체납 기업 공개 프로그램 시행 (뉴욕)

1. 고층건물 건축높이 규제에 대한 권고기준 마련 (런던)

런던의 고층건물은 과거 유럽의 선도적 도시로서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공의 상징으로서 시민 자긍심 발로의 매개체였다. 그러나 최근 고층건물이 도시 이미지와 스카이라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경관 가치의 보호,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갈등 완화 차원에서 고층건물의 공간적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전략적 견해를 담은 권고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일례로 런던시(테임즈 강변 제외)의 경우 제안된 건물의 허용높이는 75m, 런던시와 테임즈 강변을 제외한 런던지역은 30m, 그리고 테임즈 강변에서는 25m 정도이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정책결정자 회의를 통해 건물높이 규제 기준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www.lpac.gov.uk/hb-adv.html)

2. 살기 좋은 근린주구 건설을 위한 주민참여형 계획수립 (샌프란시스코)

현재 샌프란시스코는 쾌적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주민참여형 근린주구 계획('Better Neighborhoods 2002')을 수행중이다. 이 계획은 증가하는 도시인구로 인한 주거부족과 자동차 교통체증의 개선을 위해 근린주구 단위에서의 도시 토지이용과 교통시스템의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린주구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주체는 일련의 공개 워크숍, 해당 근린주구의 보행 순례 및 버스순례를 통해 각 근린주구에서 개최되는 회합과 토론에 참여하여 각 근린주구의 주민들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www.sfgov.org/planning/neighborhoodplans/bn2002.htm)

3. 인터넷에 의한 환경정보와 환경지도 제공 (베를린)

베를린시는 '베를린 전자환경지도'의 두 번째 판을냄으로써 기존에 1995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환경정보시스템의 내용과 기능을 확장하였다. 베를린 전자환경지도는 크게 토양, 물, 대기, 기후, 비오름, 토지이용, 교통 및 소음, 에너지 등 8개 부문으로 나누어 다양한 환경정보를 전자지도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및 경관 개발을 위한 기초로서 환경과 생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증하는 전자정보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베를린시의 혁신적인 정보시스템은 전문가 또는 일반 시민을 불문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공간계획과 도시 및 자연경관 형성에 기여하기를 원하거나, 환경과 생태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증진시키고 작업 가능성을 개선하고 있다.

(www.sensut.berlin.de/sensut/umwelt/uisonline/dua96/html/edua_index.html)

4. 쓰레기 수집업무를 2001년 3월부터 완전 민영화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2001년 3월부터 모든 쓰레기 수집업무를 민영화한다. 지금까지 이 업무는 환경청 산하의 공공기업에서 전담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 동부 2개구의 수집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한 결과, 40%의 원가가 절감되고 수집통의 사용으로 가로경관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현재 과거실적과 재무상황 등을 토대로 나머지 7개구에 대한 업체선정작업이 진행중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쓰레기 수집함의 설치,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분, 미달된 업무수준에 대한 벌금 부담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news.yahoo.co.jp/headlines/nna/000510/int/01300000_nnaint021.html)



5. 하수도를 정보통신망으로 이용 (동경)

동경도는 「동경도 지역정보화 계획」에 의해 하수도 시설을 정보통신망 기반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거미줄처럼 설치된 하수도관 안에 광통신 케이블을 설치하고, 지역 거점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을 중간기지로 활용하여 광통신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수도관을 민간 광통신 케이블 회사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하수도관에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중간기지나 최종단말기지로 폐합된 동사무소 또는 지역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東京都廳 자료)

6. 「디젤」車 공해 규제 확산 (동경)

일본의 대도시권에서 디젤 차량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동경도(都)가 연내에 개정 예정인 공해방지조례에 디젤차 규제를 담은 데 이어, 근기(近畿)지방에서도 오사카 등 6개 광역자치체가 공동으로 매연대책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동경도는 개정 조례에서 디젤 매연에 포함되는 입자형 물질(PM) 등에 대해 독자 기준을 설정한다. 타 현에서 도내로 들어오는 차를 포함,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은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매연 감소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며, 2006년부터 규제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디젤차를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계획적으로 휘발유차로 대체시키거나, PM 등을 제거하는 매연 감소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명시한 '자동차사용관리계획서'를 제출시켜 점검한다. (日本經濟新聞 5. 1)



7. 자동차 운행등록비 인상 (시카고)

미국 시카고시는 자동차 운행등록(the mandatory city passenger vehicle stickers)비를 최고 15달러 인상하였다. 따라서 자가용에 대해서는 75달러(약 85,000원), 1,400파운드 이하 화물차량에는 110달러(약 124,000원),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45달러(51,000원)를 부과한다. 이 자금은 시 도로개선사업을 위한 비용조달 목적으로 사용될 계획이며, 시카고 시당국은 1,500만장의 스티커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etscape.digitalcity.com/ch...works&category=News&article=488616)

8. Taxi Call Services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주요 택시회사인 COMFORT, CITYCAB, TIBS 등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택시분배시스템' '택시콜서비스' 등과 같이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택시콜서비스 기능을 계속 확대하여 현재는 약 90%의 택시가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다. 싱가포르 택시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택시회사는 이용자를 회원 및 비회원으로 구분하며, 회원들에게는 Card Phone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전화번호를 기억할 필요 없이 Card Phone의 버튼만 누르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의 종류도 긴급시, 평상시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상이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음주시 대리운전자를 제공하는 Niche Service도 제공하고 있다.

([//comfortgroup.com.sg/main.htm](http://comfortgroup.com.sg/main.htm) [//tibs.com.sg/taxis/default.htm](http://tibs.com.sg/taxis/default.htm) www.citycab.com.sg)



9. 음식점 위생검사 결과보고 웹사이트 운영 (뉴욕)

뉴욕시는 최근 뉴욕시에 소재한 음식점에 대한 시청 보건과(Department of Health)의 위생검사결과를 보고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 웹사이트는 뉴욕시내 약 18,000여 음식점에 대해 가장 최근에 실시한 위생상태 검사결과를 각 음식점별로 보여주고 있다. 위생검사는 공중위생 전문가들에 의해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데, 음식점 종업원들이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보관하며, 또 어떻게 서브하고 있는지에 대한 위생상태를 주로 평가한다. (207.127.96.244/webfood/index.htm, www.ci.nyc.ny.us)

10. "구형 휴대용 전화기를 생명선(응급용전화)으로!" (뉴욕)

뉴욕시는 즉시 응급전화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형 휴대용 전화를 오직 응급전화 911만 걸리도록 개조하는 휴대용 전화기 재활용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부 받은 10,000개 이상의 휴대용 전화기를 노인, 통학교통 안내자, 이웃감시그룹, 개인택시기사 등에게 제공하여 미리 프로그램화된 휴대용 전화기를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www.ci.nyc.ny.us/html/cctv/html/phones.html)

11. 배회고령자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일본 神奈川縣)

일본 神奈川縣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간이형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배회 고령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금년 4월 川崎市가 가장 먼저 이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어 横須賀市는 5월중, 横浜市는 7월부터 모델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치매노인에게 단말기를 미리 부착하고, 노인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단말기로부터 발신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毎日經濟新聞. 5. 27)



12. 東京의 국제경쟁력 장애요인은 ‘공항 접근 불편, 비즈니스 고비용’ (동경)

동경도는 5월중 ‘東京都市白書 2000’을 발간했다. 이 백서에 따르면, 국제도시로서의 동경은 비즈니스 고비용이나 공항교통 불편 등을 ‘동경 매력의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거점으로서 도심부 재생이나 물류 효율화, 국제공항기능 충실 등이 매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라고 하고 있다.

국제도시로서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오테마치, 마루노우치지구 등 도심부에서 빌딩 신축과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복합개발에 의한 비즈니스 환경정비 등이 필요하다. 하네다 공항 국제선화나 요코타 미군기지의 공동사용 등 교통기반의 정비와 바닷가, 강변의 활용 등 관광 문화정책과 연계된 도시 만들기도 중요 과제로서 들고 있다. 백서에서 거론한 과제들은 都가 2001년도에 책정할 ‘동경 새 도시 만들기 비전(가칭)’ 등에 반영한다. (日本經濟新聞 5. 2.)

13. 세금체납 기업 공개 프로그램 시행 (뉴욕)

뉴욕시는 세금체납 기업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청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금년 3월 1일부터 10만달러 이상 세금을 체납한 기업들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프로그램(Delinquent Disclosure Program)을 시행하고 있다. 공개 내용에는 기업명, 체납액, 대표이사 성명, 회사 주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www.ci.nyc.ny.us/html/dof/html/delinqnt.html)